

Books

베스트셀러10(소설)

순위	제목	저자	순위	제목	저자
1	구베 씨의 행복 여행	프랑수아 트루르	6	소금	박범신
2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신경숙	7	배를 엮다	미우라 시온
3	위대한 개츠비(문학동네)	스콧 피츠제럴드	8	빅 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4	위대한 개츠비(민음사)	스콧 피츠제럴드	9	퇴마록 외전	이우혁
5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10	리빙 더 월드	더글라스 케네디

*인터파크(4월 26일~5월 2일)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죽음 앞에서 그녀가 남긴 것은...

엄마가 있어줄게

세인트 존 그린 지음 | 이은선 옮김 | 문학동네 | 332쪽 | 1만3800원



영국의 세인트 존 그린과 케이트는 평범한 부부였다. 두 아이의 부모였고, 서로 사랑했으며, 순간에 감사했다. 이들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친다. 아내 케이트가 유방암에 걸렸다. 첫째 아이 리프가 희귀한 암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돼 찾아온 불행이었다. 병색은 점점 짙어졌다. “만약 당신이 떠나면 어떡하지?” 무심결에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고 아내 케이트는 홀로 아이들을 키울 남편을 위해 ‘엄마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내가 떠난 뒤에 아이들에게 두 배로 뽀뽀해주기, 아이들이 부탁하면 언제나 도와주기, 생일 축하하는 요란하게, ‘무진장 무진장’이란 말 쓰기, 추억 상자를 만들어 우리 추억을 정리하기... 엄마는 자신이 아이들 곁에 머물렀다면 당연히 해주었을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 갔다.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줘’ 처럼 아빠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포함됐고, ‘늘 다니는 곳에서 네잎 클로버 찾기’ 같은 작은 부탁도 빼놓지 않았다. ‘아이들 놀이방을 마련해주기’ ‘이집트 흥해에서 스노클링 즐기기’ 같은 다소 거창한 프로젝트까지 더해져 모두 77가지 리스트가 완성됐다. 남편에게 주는 당부이자 엄마 없이 자랄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증표였다.

케이트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은 늘 ‘엄마의 리스트’를 떠올렸다. ‘내가 떠난 뒤에 아이들에게 두 배로 뽀뽀해주기’라는 케이트의 부탁대로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들기 전 양쪽 뺨에 뽀뽀를 했다. 한쪽은 자신의 뺨, 다른 한쪽은 엄마의 뺨이었다. ‘생일 축하하는 요란하게’ 항목대로 리프의 여섯 번째 생일에는 학교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 베에서 해적 파티를 벌였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아이들과 함께 이집트로 훌쩍 떠난다. ‘이집트 흥해에서 스노클링 즐기기’를 단행하기 위해서다.

지역 언론사에 소개된 후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퍼져 나간 사연을 담은 책, 지난해 출간돼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전 세계 14개국에 번역 출간됐다. 과장 없이 담담하게 써 내려간 문장이 가슴을 저릿하게 만든다. 늘 곁에 있는 가족이 더 소중해지는 계절이다. 허윤희 기자

편집자 레터

‘死神 치바’는 우릴 보고 뭐라고 할까요?

휴대전화가 울릴 때 6000번대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면 난감해집니다. 대부분 보름을 틀러거나 신용카드 교체를 권하는 내용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빨리 끊지 못하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오래 듣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그런 전화를 받고 화내는 사람을 봤습니다. “너, 이 번호 어떻게 알았어?”라며 전화기에 대고 욕을 하는데 듣기 괴롭더군요.

하루에도 수십·수백만 모르는 이에게 전화해 상품 가입을 권하거나, 까다로운 손님에게 웃는 낯으로 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불만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이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항공기 승무원, 홍보 도우미,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이 이런 직업에 해당합니다. 2009년 ‘감정노동’이란 책이 나왔었는데, 이번 ‘항공기 비즈니스석 라면’ 사건 이후 이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작가 이사카 고타로의 소설 ‘사신(死神) 치바’에는 고객의 불만 전화를 받는 22세의 여성 상담원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1주일 뒤 죽을 운명입니다. 저승사자 치바는 예정대로 죽음을 집행할지, 아니면 좀 더 살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여자는 치바에게 이렇게 푸념합니다. “나한테 연결시키는 고객들이란 하나같이 사소한 일로 생뚱빚을 잡는 사람들뿐이어서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들어준 다음 나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기만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내 인생에 클레임을 걸고 싶다”고 자조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치바는 그녀에게서 좋은 기수가 될 가능성을 발견하고 예정된 운명을 바꿔주려 합니다. 작가 고타로는 이 설정을 통해 직업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이탈리아의 석학 움베르토 에코는 “독서는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에게 모질게 구는 분들, ‘사신 치바’를 읽어 보십시오.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될 겁니다.



김태훈·Books팀장

천재를 ‘세계적 천재’로 만드는 남자



아일랜드계 유대인인 존 브록만의 부친은 꽃 도매상이었다. 좀처럼 웃지 않는 그는 “꽃이 시들기 전에 팔려고 무던히 애썼던 아버지와 책 시장에서 저작권을 파는 나는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셈”이라고 했다. 뉴욕=박돈규 기자

John Brockman ‘에지 시리즈’ 기획자 존 브록만을 만나다

존 브록만(Brockman·72)의 집무실 창밖으로 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였다. 그는 ‘과학적 아이디어의 설계자이자 흥행사’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스티븐 핑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상에 우뚝 솟은 이 책들은 브록만 주시회사 대표이자 에지(Edge)재단 회장인 그의 손을 거쳤다.



브록만은 1997년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온라인 살롱 ‘에지’(www.edge.org)를 만들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그가 질문을 던지면 ‘고객’인 세계적인 석학 100여명이 응답하는 식이다. 이듬해 그것은 한 권의 책으로 묶인다. 이른바 ‘에지 시리즈’다.

브록만은 과학자와 예술가를 그들의 영토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지식인 사회에 열린 인물이다. 영화 프로그래머였던 1960년대에는 앤디 워홀, 존 케이지, 백남준 같은 전위예술가와도 작업했다. 브록만은 “리처드 도킨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이제 과학자 밑에 눈문을 거는 쓰지 않는다”면서 “탁월한 저자인 그들은 책을 쓰면서 더 넓은 세상과 만난 셈”이라고 말했다.

5월 중순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미래예측서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김소정 옮김·갤리온)가 한국에서 번역·출간된다. 확장 시절부터 과학을 좋아했나?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 나는 교육이 전부인, 믿을 것이라곤 자식 교육밖에 없는 집에서 자랐다. 1940년대 내가 자란 보스턴 외곽은 아이들이 거질렸다. 형과 나는 그들과 썸박질을 하고 귀가하곤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무기가 있었다.”

- 비밀스러운 무기?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사이트 ‘에지’ 리처드 도킨스·재레드 다이아몬드 세계적 과학 저술가 키운 출판인 이번엔 미래예측서 ‘이것이...’ 펴내 “나는 지식 비즈니스맨” 대중이 읽기엔 버거운 내용 많지만 지식인 사이에 회자되는 걸로 만족

“어머니는 우리 얼굴에 생김새를 묻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들을 보라. 일요일마다 햄을 굽고 팔다 남으면 일주일 내내 먹는다. 우리는 달라. 저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아인슈타인을 갖고 있다.’ 아인슈타인이라던 책이었다. 형과 나는 도서관에 다니며 ‘큰 생각(big thoughts)’을 하는 법을 깨쳤다.”

- 당신이 ‘관리’ 하는 과학자 목록을 보고 압도당했다.

“그들이 아인슈타인의 후예다. 여전히 ‘나만의 아인슈타인’을 갖고 있는 셈이다.”

- 이 책에서 던진 물음은 어떻게 뽑았나?

“나는 해마다 8월쯤부터 고민하기 시작한다. 수십 개 후보 중에 그 질문을 골랐다.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과학 개념과 발견이 뭘지 궁금했다.”

- 진화생물학, 유전학, 컴퓨터학, 신경생리학, 물리학, 심리학 등에서 134개의 전망을 책에 그렸고요. 가장 매력적인 것은?

“게놈(genome·생물유전정보) 연구를 개척한 크레이그 벤터의 답이다. 그는 하나의 게놈을 다른 게놈에 이식하겠다고 선언했다. 게가 고양이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브록만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두 컷을 보여줬다. 아들이 손녀를 안은 사진과 아들이 흰 고양이를 안은 사진이었다.)

- 대중이 읽기엔 버거운 책이다.

“독자가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 지식인 그룹에서 읽히고 화제가 된다면 만족이다.” - 에지 사이트의 역할이 뭐가? “에지는 특별하다.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TED보다 10년 먼저 책으로 석학 강연을 시작한 셈이다. 나는 배우가 아니라 그들의 무대를 설계하고 조명을 비추는 사람이다.” - 최고의 과학자들이 쓴 책을 파는 비즈니스 방식이 있다면?

“비즈니스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미국에는 머독, 바이어컴 등 언론 재벌이 6개 있다. 일반 작가나 에이전트는 그들을 향해 찍소리도 못한다. 하지만 나 에겐 ‘모기(mosquito)’가 있다. 힘있는 저자들, 그들이 쓰는 책이다. 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한다.”

- 당신은 두 쪽짜리 제안서만 돌리고 판권을 경매에 부친다고 들었다(그는 판권 가격을 높이는 에이전트로 악명이 높다).

“완고(完稿)보다는 그게 낫다. 하루 8시간 일하며 일주일 30권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에게 원고 더미를 던져주면 ‘죽이려는 거냐’고 불평할 것이다. 물론 거래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 어떤 책이 내가 떠난 선인세보다 많이 팔리면 낭패다. 선인세를 더 챙길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 보스턴에서 거대한 화웨 도매상을 했던 부친에게 배운 게 있다면?

“아버지는 새벽 3시에 시장에 나갔다. 해가 뜨고 한낮이 될수록 꽃은 시들어 풍덩이 된다. 나도 고객이 맡긴 자산(저작권)을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

- 당신이 보기에 한국 출판사들은 과도한 선인세를 주는 ‘봉’ 아닌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날 그가 한 말 중 가장 확신에 찬 대답이었다.

뉴욕=박돈규 기자

브록만의 다른 책들

상식에 도전장 ‘위험한 생각들’ 인간 욕망에 경고장 ‘컬처 쇼크’



브록만이 엮은 에지 시리즈 중 ‘위험한 생각들’(이영기 옮김, 갤리온)은 국내에서 4만부나 팔렸다.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대에는 사회적·윤리적·정서적으로 위험하게 간주된 발견들이 수두룩하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도 그랬다. ‘위험한 생각들’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범죄자가 아니라 그의 유전자들 벌하라”고 말한다. 크레이그 벤터는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에서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거둔다.

전문적이라 까다롭지만 도전해볼 만한 책으로 최근에 나온 ‘컬처 쇼크’(강주현 옮김, 와이즈베리)가 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책에서 남태평양 이스터 섬에서 인간 때문에 나무가 절멸한 사례를 들며 ‘왜 어떤 사회는 재앙적 결정을 내리는가’를 설명한다.

데이비드 갤런터의 ‘인터넷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 등도 사회·예술·권력·테크놀러지의 미래를 제시한다. 박돈규 기자

이번 주 이 페이지

배를 엮다
일본 서점대상 1위, 70만 부 판매
미우라 시온 장편소설

배를 엮다

유쾌하고, 뜨겁고,
기분 좋은 아날로그 편지!

책을 고르는 새로운 기준
인터파크 도서

이번 주 이 페이지

아주 작은 집? 아주 적은 짐!

아주 작은 집
로이드 칸 지음 | 이주만 옮김
한스미디어 | 352쪽 | 3만5000원

부동산이 경제의 집이 되는 나라에서 ‘작은 집’은 대안 중 하나다. 이 책은 초소형 주택 250채로 속을 채운 모델하우스다. 3m x 4.8m 크기의 오두막을 트럭으로 ‘배송’하는 사진에 눈길이 붙잡힌다. 주변이 탁 트인

내 땅만 있다면 오두막 생활도 운치 있겠다. 작은 집에서는 살림을 줄여야 한다. 삶의 잡동사니를 다 제거하면 ‘없으면 안 되는 것’만 남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를 돌아보게 된다. 버릴 목록을 작성하며 씩 웃어본다. 나무나 물 위에 지은 집, 뱃안으로 지은 집도 만날 수 있다. 134쪽에 나오는 일본의 캡슐호텔(길이 1.8m, 폭 1.5m)은 낭만적이건커녕 끔찍하다. 박돈규 기자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캡슐 호텔. 일단 안에 들어가면 일어설 수 없다.

한스미디어 제공